

다니엘서 - 번호 41

바울의 예언적 사역: 고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연결

Jeff Pippenger

2024-01-05

사도 바울은 고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잇는 연결 고리였는데, 그의 사역과 이름, 개인적 상황, 그리고 예언적 사역이 모두 이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19.

그가 개종할 때 받은 이름은 바울로, '작다' 또는 '작은'이라는 뜻인데,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다. 그러나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로, '선택된'이라는 뜻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여, 이 사람에 관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나이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지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라. 사도행전 9:13-15.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었지만, 그는 먼저 회심하여 낮아져 바울(작은 자)이 되어야 했다. 이는 그가 강해져야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자신의 작음, 곧 약함에 있음을 이해했다.

계시가 넘치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 곧 나를 치도록 보낸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으니, 이는 내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 간구하였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7-10.

사울은 '선택'되었지만, 강해지기 위해 작아졌다(바울).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부분적으로는 구약에 대한 그의 지식 때문에 선택되기도 했다.

특히 당신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습과 쟁점들에 정통하신 분임을 내가 알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곧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내 동족 가운데 살던 때부터의 나의 생활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알아 온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3-5.

사울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교사들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가말리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요청이 허락되었고,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신호하였다.' 그 손짓은 그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의 태도는 존경심을 자아냈다. '큰 침묵이 일자, 그는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자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제 내가 너희 앞에서 하는 나의 변명을 들으라.' 익숙한 히브리어 말소리를 듣자, '그들은 더욱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온전한 정적 속에서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참으로 유대인인 사람으로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성에서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자라 조상들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두가 그러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있었다.' 사도의 진술을 부인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언급한 사실들은 예루살렘에 아직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행적, 408.

사울은 우연히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의 사역에 주어진 구체적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문자적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와 영적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 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신약의 대부분을 저술했다. 그의 저술 가운데 한 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틀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밝혀 주며, 셋째 천사의 기별의 틀을 뒷받침하는 근거 또한 밝힌다. 그 본문은 재림운동의 역사 속에서, 재림운동의 시작과 끝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별을 밝혀 주는 기념비적 본문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보이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은 오지 않는다. 그는 신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그가 자기 때에 드러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다만 지금 억제하는 자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억제할 것이다. 그때에 그 불법한 자가 드러날 것이니, 주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멸하시고 그분의 강림의 광채로 그를 폐하시리라. 그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며, 또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나타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이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1-12.

이 구절의 맥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에 대한 논의이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이런 일들을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이미 이전에 답했음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상기시킨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일"에 관하여 형제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려 했다.

역사가들은 윌리엄 밀러의 메시지의 절반이 그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2,300년으로 해석한 것에 근거했다고 지적한다. 때로는 간과되지만, 그의 메시지의 나머지 절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는 그의 노력이었다.

거짓된 예수회식 방법론에 근거해 윌리엄 밀러가 일관되게 반대했던 두드러진 거짓 교리가 있었고(지금도 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 "현세적 천년기"라 불리는 천년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 가르침이었으며, 화잇 자매 역시 이에 반대했다.

밀러의 사역은 또한 그의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천년왕국에 관한 각종 그릇된 관념들에 맞서 그리스도의 문자적 재림의 진리를 확립하는 일이기도 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재림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본문은 밀러가 이해한 문자적 재림의 일부였다. 그 장은 밀러에게 "현진리"였다.

바울은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의 순서를 제시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아,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beseech"라는 단어는 "심문하다"를 의미한다. 바울은 재림과 관련된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며, 그의 청중이 그의 논리를 분석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심문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

그의 논리 구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황권의 정체가 드러나고 통치해야 하며, 또 교황권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배도는 아직 미래의 일이었으므로, 교황권의 도래는 그보다도 더 이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속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배도 이후에 드러나는 그 권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황권을 가리키는 여러 상징을 사용한다. 그는 교황권을 "불법의 사람", "그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라 부른다. 화이트 자매는 이것들이 모두 교황권을 지목하는 상징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종교계의 중요한 발전들이 일어날 것이었다.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였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이나 숭배되는 모든 것에 대적하며 스스로 그것들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인 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느니라.'

바울의 말은 곡해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가 특별한 계시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경고했다고 가르쳐서는 안 되었다. 그런 주장은 신앙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니, 실망은 종종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형제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자기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이어 선지자 다니엘이 그렇게 분명히 묘사한 교황권이 아직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 권세가 그 치명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수행하기 전에는 교회가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은 헛될 것이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참된 교회를 덮칠 시련들은 심히 혹독하였다. 사도가 기록하던 바로 그때에도 이미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불의의 미혹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관해 사도가 한 진술은 특히 엄숙하다. 그는 진리의 메시지를 고의로 거절할 모든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보내시는 경고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경고를 외면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거두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미혹에 맡겨 두신다. 사도들의 행적, 265, 266.

화이트 자매는 바울의 서신에서 ‘죄의 사람’, 그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과 ‘불법의 비밀’을 직접 지목하여 그것을 ‘교황권’이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거기서 더 나아가 말한다. 그녀는 바울이 로마의 교황을 지목하기 위해 사용한 이러한 상징들이 다니엘서에 근거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러므로 사도는 형제들에게 그런 기별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이어 선지자 다니엘이 너무도 분명히 묘사한 교황권이 아직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일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권세가 그 치명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교회가 그들의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은 헛될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기별 중 교황권을 지목한 부분을 다니엘서 11장 36절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참람한 말을 할 것이요, 진노가 끝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6.

바울이 교황을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이고 대적하여,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임을 보이는 자”로 지목할 때, 바울은 선지자 다니엘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이며 “모든 신 위에 스스로를” 크게 한 “왕”을 묘사한 것을 바꿔 말한 것이었다. 교황은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놀라운 말들을” 말하는 그 왕이며, 교황은 1798년에 첫 “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번영할” 권세이다.

1989년의 지식의 증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11장 36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유라이어 스미스가 도입한 “그 절의 왕은 프랑스였다”는 거짓 가르침이 재림교회 제1세대(1863~1888)에 도입되었다. 스미스는 36절의 본문에서 이전 절들에서 묘사되고 있던 교황권을 가리키는 “the 왕”을 “a 왕”(아무 왕이나)으로 바꾸어, 무신론적 프랑스에게 로마의 예배 방식의 특징을 부여하려 했는데, 그것은 40절 이후에서 북방 왕이 터키라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이론을 내세우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사탄은 애초부터 그 구절에 나오는 왕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흐리려 했고, 이 사실에 대해 다니엘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증인은 사도 바울이었다. 화이트 자매는 세

번째 증인이었다.

사탄은 그 구절의 왕이 교황을 가리킨다는 진리를 흐리게 하려 했을 뿐 아니라, 그 구절에 담긴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그 구절의 '분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의의도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 구절에서의 교황권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1798년까지 번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1798년은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어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하여 집행된 하나님의 '분노' 2,520년의 종결점이다.

재림주의가 1863년에 '일곱 때'를 옹호하고 고수했다라면, 유라이어 스미스가 36절에 관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주장을 용인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진노'가 '일곱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프랑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89년의 지식의 증가는 그 본문에서 바울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 때문에 그 본문에서 바울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강한 미혹을 받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그들이 그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한 진리들을 거절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그 진리들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북방 왕의 정확한 식별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교황을 지목한 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세상 종말의 일련의 사건들을 지목하는데, 이것이 이 구절의 주제이다. 그는 "그때에 그 악한 자가 드러나리라"라고 말한다. 그 "악한 자"는 교황이며, "주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그가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 또한, 그의 오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들과 함께 온다"고 말한다. 예수는 "그의 오심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오는 바로 그이다.

사탄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기간은 임박한 일요일법령의 시행 때부터 미가엘이 일어나시고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닫힐 때까지이다. 사탄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부여지는 마지막 일곱 재앙 동안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만일 치유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한 것을 정당화하고 불순종을 계속하려 한다면, 그 권능이 아무리 크고 모든 방면에 미친다 해도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했다는 뜻은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큰 기만자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그는 도덕법을 범하는 자이며, 사람들의 눈을 그 도덕법의 참된 성격에 대하여 가리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계략을 사용한다. 마지막 날들에 그가 표적들과 거짓 이적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우리는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이적들을 계속할 것이니, 자신이 어둠의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그것들을 내세우기 위함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7권, 911쪽.

바울은 교황권이 드러나기 전에 배도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탄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탄의 놀라운 역사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하여, 은혜시기가 마감되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임할 때 끝난다. 사탄의 놀라운 역사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교황권 제도를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로움과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뻘어 로마 세력의 손을 붙잡게 될 때, 또 그가 깊은 구렁을 넘어가 강신술과 손을 맞잡게 될 때, 그리고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기 위한 대비를 갖추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기묘한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일요일 법령은 여섯째 왕국, 곧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끝이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황권의 1260년 통치가 끝나는 1798년에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교황권은 538년에 드러났지만, 바울이 그 말을 기록하던 때 이미 세상을 장악하려는 그 세력의 활동은 진행 중이었다. 538년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죄의 사람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배도가 일어날 것이었다.

배도는, 황제 콘스탄티노로 상징되듯, 기독교 교회가 이교의 종교와 타협했을 때의 버가모 교회로 대표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예언적 이정표들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전에 가르쳤던 것을 상기시킨 뒤, 자신이 이 진리들을 전에 가르쳤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또, 어떤 권세가 교황권을 "withholdeth" 하여 "that" 교황권이 "그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지 않느냐고 상기시킨다? "withholdeth"라는 단어는 억제한다는 뜻이다. 같은 본문에서 뒤에는 "withholdeth"가 "now letteth"로 번역된다.

그러므로 그 구절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표현된다. "이제 너희는 무엇이 교황권을 억제하는지 알고 있으니, 이는 교황권이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불법의 비밀(교황권)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다만 지금 교황권을 억제하는 자는, 그가 제거될 때까지 계속 교황권을 억제할 것이다." 윌리엄 밀러가 데살로니가서의 이 구절을 깨달았을 때, 그는 538년에 교황권이 땅의 왕좌에 오르는 것을 막았던 권세가 이교 로마였고, 또한 이교 로마가 '제거될 때까지' 교황권의 부상을 억제할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자연신론자였던 12년 동안, 찾을 수 있는 모든 역사서를 읽었지만, 이제 나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어둡고 이해되지 않았다. 1818년이나 19년에, 내가 찾아가 만난, 내가 자연신론자였을 때 나를 알고 내 말을 들었던 한 친구와 대화하던 중에, 그가 다소 의미심장한 태도로 '이 구절은, 저 구절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물었다. 내가 자연신론자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곤 했던 옛 구절들을 가리키며 말이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했다—시간을 주면,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주겠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오?'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소,' 하고 내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주셨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성령께서 뜻하신 바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 믿고 성경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혹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방법이 떠올랐다:- 그런 구절들의 낱말들을 뽑아 성경 전체를 통해 추적하여, 이런 방식으로 그 의미를 알아내리라. 내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Cruden's Concordance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과 성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기에 신문을 조금 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 천천히 읽어나갔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성경을 두루 찾아보았다. 이렇게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고 난 뒤, 오, 진리가 얼마나 밝고 영광스럽게 드러났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오던 것을 나는 발견했다. 나는 일곱 때가 1843년에 끝났다는 데 확신이 섰다. 그리고 나서 2,300일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나를 같은 결론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나는 구주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아낼 생각이 없었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빛이 너무도 강하게 내게 임해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나는 생각했다, 박차도 차고 제동 장비도 갖추어야겠다. 성경보다 앞서 가지도 않을 것이며, 뒤처지지도 않겠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굳게 붙들겠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의 일반적인 방식은 이와 같았다. 또 다른 자리에서 그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의미—'the daily'의 의미—를 확정하는 자신의 방식을 이렇게 밝혔다. "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다른 경우를 다니엘서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 곧 'take away'를 취했다. '그가 the daily를 제거할 것이요', 'the daily가 제거되는 때부터' 등등. 나는 계속 읽었고, 이 본문에 대한 빛을 찾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8절에 이르렀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나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길에서 제거될 때까지 막으리라. 그리고 그때에 그 악한 자가 드러나리라' 등등. 그리고 내가 그 본문에 이르렀을 때, 오,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던지! 저기 있다! 저것이 'the daily'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지금 막는 자', 곧 방해하는 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불법의 사람'과 '그 악한 자'로는 교황권을 뜻한다. 그렇다면 교황권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교다. 그렇다면 'the daily'는 이교를 뜻해야 한다." 윌리엄 밀러, 아폴로스 헤일, "The Second Advent Manual", 65, 66쪽.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의 상징이었다는 이해가 없었다면, 밀러는 그가 예언적 구조를 세우는 데 토대로 삼은 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the daily"는 다섯 번 등장하며, 항상 그 뒤에 교황권의 상징이 따른다.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임을 보여 주는 증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엄중한 경고들 중 하나가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이 보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데살로니가서에 의도적으로 담긴 진리는 이교와 교황권의 연관성을 식별하는 것이었고, 그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그 거절의 결과로 강한 미혹이 뒤따르게 됨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 이 주제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머물러 놀라라; 외쳐 부르짖으라, 참으로 부르짖으라: 그들은 취하였으나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고,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곧 선지자들과 너희의 통치자들과 선견자들을 그가 덮으셨느니라. 모든 목사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읽을 수 없노라, 이는 봉하였음이라 하겠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곧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라: 이는 그들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가려질 것임이니라. 화 있을진저, 자기들의 계략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여, 그들의 행위는 어두운 데에 있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도다. 진실로 너희가 사물을 뒤엎는 것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어찌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자를 가리켜,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그에게는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9-16.